



● 제4회 한국대학영어실험연구협의회 (ULLA) (1968년 12월 29일)



第 6 回 韓國大學語學實驗研究協會 記念撮影

● 제6회 한국대학영어실험연구협의회 (ULLA) (1970년 1월 6-7일)

알 리

1980년 2월 22일 연구발표회에서 제기된 대학영어 입학시험에 대한 문제물 3월 15일에 전 회원에게 알리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문교부에 보낸 바 문교부 장관 이흥으로 대학 교육국장이 회담을 보내 왔기에 건의문의 취지에 대해서 7월 26일에 있을 총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건의문

한국영어교육학에서는 1980년 2월 22일 서울 미국문화원에서 동계학술회의를 열고 한국 영어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건의문을 가졌던 바 청취력 훈련의 부재 상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라 지적되었다. 이날 토의에 참가한 회원들은 대입고사에 영어 청취력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이 문제해결의 절경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조속한 실현을 문교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하였다.

영어 청취력 문제가 예비고사에 등장하게 되면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에서 청취력을 중시하게 될 것이며, 청취력은 발화력(speaking)의 선행조건이므로 발화력 훈련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리라는 것이 우리들의 확신이다.

한편 이렇게 되면 끝만 중시하고 말은 무시하여 영어의 커뮤니케이션과 필리피를 양산해 오던 우리의 비생산적인 영어교육에 중저부름 짝을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으로 타당성과 실효성이 높은 훌륭한 영어 청취력 시험문제를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BS 등 기존 방송 방송을 이용하여 이러한 시험을 쉽게 실시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도 우리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렇게 청취력 문제를 굳이 예비고사에 넣어 중거를 바라는 것은 예비고사가 문교사 보다 중·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더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

● KATE에서 문교부에 보낸 건의문: 대입고사에 영어 청취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1980년 3월)

나라 각 대학이 청취력 문제를 별도로 출제 실시한 경우 노력의 증폭에서 오는 낭비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교부는 이러한 우리들의 뜻을 받아들여 예비고사에 영어 청취력 문제를 포함시켜서 한국 영어교육이 새로운 전기를 맞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우리들은 한국 교육학회의 이름으로 건의하는 바이다. 아울러 실용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고급 인력에 대한 국가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문교부의 이러한 선도적인 역할을 함은 민족적 영원과 시대의 명예에 부응한다는 사신을 강조하는 바한다.

1980년 3월 일

한국 영어 교육 학 회

의 장	송 병 학	(충남대학교)
부 회 장	배 안 시	(한양대학교)
	최 준 기	(경북대학교)
총 무	서 상 숙	(충남대학교)
재 무	서 철 현	(연세대학교)
편 집	박 남 식	(서울대학교)
	이 상 준	(한국의국어대학)
이 사	김 현 국	(연세대학교)
	신 상 순	(전남대학교)
	이 중 찬	(충남대학교)
	김 재 민	(육군사관학교)
감 사	송 요 인	(동국대학교)
	남 용 우	(단국대학교)
	강 수 인	(계주대학)

의 회원 일동



● 1994년 CETA 국제학술대회 (1994년 7월 22-23일)



● JACET과 자매결연 협정서 조인식 (1994년 10월 21일)



● 제1회 SIG Joint Workshop/Seminar (2003년 2월 14일)



● 영어교육 총서 (1994년~1995년)



● 제1회 KATE-YBU 공동 학술대회 (2003년 8월 9일)